우암학원 창학 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1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94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월 18일 2023년 2월 8일 수요일

광주 상무지구 등 20년 넘은 신도시 새롭게 태어나나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전국으로 확대
광주 '상무·하남·문흥·일곡·풍암지구' 조건 충족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최대 500%까지 '파격 혜택'

광주시 개발 의지 여부가 변수

상무지구 등 광주 도심 내 20년 넘은 노후 신도시들이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화를 털어내고, 새롭게 태어날지 주목된다.

특히 안전진단을 완화 또는 아예 면제해주고,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특별 혜택이 예고됨에 따라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한 노후 신도시 간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다만 광주시장의 개발 의지 여부는 변수로 꼽힌다.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정 권한을 부여받은 광주시에서 사업 대상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해야 하는데, 5곳이나 되는 대상지 전체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개발하기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따르면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 재정비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1기 신도시(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정부에 광주 상무지구 등 지방 노후 신도시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의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았다. 또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이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광주 상무지구를 비롯한 지방거점 신도시 등은 내년 상반기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오섭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에선 광주 상무1지구(면적 252만㎡·1999년 조성사업 완료)을 비롯한 하남, 문흥, 일곡, 풍암지구 등 5곳이 면적과 20년 이상 조건 등을 충족한다.

조 의원실은 다만 "특별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결국 지정 여부는 광주시의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파격 혜택이 알려지면서 노후 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주요 혜택을 보면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한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준다.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도 가능하게 한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특히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빠른 사업 추진도 돕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교사들 담임 기피 ▶7면
미리 가보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14면
디지털 걸리버여행기-챗 GPT 열풍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튀르키예에서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한 6일(현지시간), 인접한 시리아 알레포주 아프린시 잔다리스의 붕괴한 건물 잔해에서 시민들이 다친 여자아이를 구조하고 있다. 아프린시는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곳이다. /연합뉴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사망자 5천명 넘었다

〈한국시간 7일 오후 기준〉

부상자도 2만명 이상 발생
美 지질국, 사망 1만여명 예측

6일(현지시간)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 하루만에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관련기사 2면〉

AP,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이날 지진 피해를 입은 10개주에서 3500여명이 숨지고 2만여 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시리아 보건부는 현재까지 정부가 통제 중인 지역의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1400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했다.

시리아 반군 통제 지역에서 활동중인 민간구조대는 반군 통제지역 사망자는 최소 790명, 부상자는 최소 2200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사망자 수가 1000~1만 명일 확률 47%, 1만 명 이상일 확률 20%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며 재난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캐서린 스몰우드 WHO 유럽지부 선임비상계획관은 AFP에 "추가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망자가 초기 통계보다 8배까지 증가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새벽 4시17분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약 33㎞ 떨어진 내륙, 지하 17.9㎞에서 규모 7.8(USGS)의 지진이 발생했고, 오후 1시 24분 카흐라만마라슈 북동쪽 59㎞ 지점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뒤따랐다.

두 차례에 걸친 강진과 80여 차례의 여진으로 튀르키예는 물론 남부 인접국 시리아에서도 사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현지에 거센 추위가 덮쳤을 뿐 아니라 여진도 이어져 구조 환경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튀르키예는 7일까지 영하의 온도가 유지될 전망이고, 가지안테프 기온은 최저 영하 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은 건물 최소 5606채가 무너져 현재까지 잔해 속에서 총 7800여 명이 구조됐다고 전했다. 튀르키예 당국에 따르면 총 10개 지역에 구조대원 1만여 명이 파견돼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 지역은 구조 작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